

손흥민·류현진·고진영...2020 해외파 활약 계속된다

해외 무대에서 멋진 모습으로 국내 팬을 즐겁게 하는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은 2020년에도 이어진다. 유럽 프로축구에서 연일 한국·아시아 선수 최초·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손흥민(27·토트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팀을 옮겨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1선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류현진(32·토론토 입단 예정)이 변함없이 선봉에 선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을 비롯한 한국 선수들의 강세가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Son, 개인 한 시즌 최다 골 '정조준'

2019년 내내 물오른 기량을 뽐내며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올랐으나 퇴장과 징계로 한 해를 다소 아쉽게 마무리한 손흥민은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한다.

복귀전으로 예상되는 5일 미들즈브러와의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3라운드를 시작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실재 없이 치러야 한다.

조제 모리뉴 감독 체제에서도 변함없는 신임을 얻으며 증명되는 만큼 남은 2019-2020시즌 동안 손흥민이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새로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손흥민의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은 토트넘 2년 차인 2016-2017시즌에 남긴 21골(프리미어리그 14골)이다. 지난 2018-2019시즌에는 그에 버금가는 20골(프리미어리그 12골)을 넣었다.

이번 시즌엔 프리미어리그 5골, UEFA 챔피언스리그 5골 등 10골을 넣고 있는데, 아직 일정이 많이 남은 데다 한 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무섭게 몰아치는 데 능한 만큼 부상 없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기록 경신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캡틴'이기도 한 그는 벤투호와 함께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

3월 튀르키예(홈), 스리랑카(원정), 6월 북한(홈), 레바논(홈)과의 2차 예선이 펼쳐지고, 9월부터는 월드컵 본선행이 결정될 3차 예선이 펼쳐진다.



손흥민

Ryu '토론토의 괴물' 될까

미국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동지를 둔 류현진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2019시즌 내셔널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류현진은 최근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토론토와 4년 8천만달러의 대형 계약에 합의했다.

토론토는 류현진에게 도전의 땅이 될 전망이다.

토론토가 속해있는 아메리칸리그는 지명타자제도가 있어 선발투수가 타석에 들어서지 않는다. 류현진에겐 투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상대 팀 투수가 타석에 들어서지 않아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사라졌다.

토론토의 팀 전력에 다저스 보다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럽다.

월드시리즈 우승 후보였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류현진

타선과 계투진의 도움을 받았던 류현진은 새 시즌 비교적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토론토가 속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엔 전통의 명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물러있는 격전지이기도 하다.

관건은 몸 상태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진출 후 몸 상태에 따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다. 건강한 류현진은 국내 야구팬을 실망하게 한 적이 없었다.

Ko "도쿄올림픽 선봉에 선다"

2019년 역대 한 시즌 최다 타이 기록인 15승을 합작한 LPGA의 '한국 군단'은 2020년에도 견재하다.

올해의 선수,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상금,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 1위를 모두 휩쓸며 여자골프 1인자로 우뚝 선 고진영은 더 나은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



고진영

현재 세계랭킹 2위인 박성현(26)과 2019년 신인왕 이정은(23) 등 대항마들도 만만치 않다.

특히 LPGA 투어 데뷔 첫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을 제패하고 신인왕을 거머쥐며 완전히 안착한 이정은의 기세가 주목된다.

고진영, 이정은 등 세계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공통으로 꼽는 '2020년 목표'는 도쿄 올림픽이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15위 내 한국 선수 중 상위 4명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정은, 박성현, 김세영(26·6위), 이정은(7위)이 해당한다.

세계랭킹 14위인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31) 등 다른 선수들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세계랭킹을 지키거나 끌어 올리기 위해선 LPGA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필수인 만큼 시즌 초반부터 도쿄행 티켓을 잡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김영구·양진석·전갑수 '초대 민선 광주시체육회장 후보 단일화'

전갑수 전 회장 1인 후보 등록 전격 합의

'통합·현신의 리더십' 높이 평가

초대 민선 광주시체육회장 출마를 준비했던 김영구(우세진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양진석(호원 대표이사)가 전갑수(사진) 전 광주시배구협회를 선거후보자로 추대했다.

2일 광주체육계에 따르면 세 사람은 이날 세 명 가운데 1인을 후보 등록하기로 합의하고, 후보 등록지는 전 전 회장으로서 의견을 모았다.

김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전갑수 전 회장이 현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광주체육을 발전시킬 적임자"라며 전 전 회장에 힘을 실어주기로 뜻을 모았다.

김 대표와 양 대표는 "전 전 회장이 전문경기인 출신으로 정치와 체육 분리라는 민선체육회장 도입 취지에 맞는 인물인데다 그동안 사심 없이 광주체육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광주시배구협회장으로서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잘 아우



르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1기 체육회장을 놓고 분열 양상이 나타나 기업인이 체육계에 들어가 체육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다"면서 "민선 체육회장이라는 순수한 취지가 왜곡되고 불합·혼탁 양상까지 보여 경제인보다는 전문체육인이 맞겠다고 판단돼 경기인 출신인 전 전 회장에게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양 대표는 또 전 후보 당선을 위해 돕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단일화에 합의 한 뒤 전 전 회장은 본

보와 전화통화에서 "경기인 출신에게 양보를 해준 두 분의 용단에 감사를 드리고 더 어깨가 무겁다"며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광주체육발전에 앞장서려 했던 두 분의 깊은 뜻과 체육사랑에 존경심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민선1기 광주체육발전에 봉사하고 체육인들의 생활체육·엘리트 체육 구분 없이 잘 아울러 이끌어 가겠다"며 "더불어 학교체육도 심혈을 기울여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광주시체육회장에 김창준 전 광주시체육회 고문장도 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초대 민선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5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다목적관에서 선거인단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회장 후보등록은 오는 4-5일 이틀간 진행된다. /박희중 기자



2020시즌 K리그1 무대로 복귀한 광주FC 선수단이 2일 순천팔마운동장에서 첫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FC 선수단은 오는 16일까지 순천 일원에서 기초체력훈련과 맞춤형 전술훈련을 실시한다. /광주FC 제공

다시 뛰는 광주FC "K리그1 새역사 쓴다"

2일 선수단 소집...순천 일대서 국내 1차 훈련 실시
14일간 체력·근력 강화 목표, 2차는 태국 치앙마이

2020시즌 K리그1 무대로 복귀한 광주FC가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광주는 2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순천 일대에서 1차 국내동계훈련을, 19일부터 2월13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2차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국내 전지훈련에서는 기초체력훈련과 선수 개개인의 역량평가, 또 그에 맞춘 개별전술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박진섭 감독은 "선수들의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체력과 전술 훈련을 안배해 나갈 예정"이라며 "K리그1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했다.

광주는 또 오전, 오후 훈련 뿐 아니라 격일로 야간 체력훈련과 프레젠테이션을 병행하며 근력향상 및 전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차 해외훈련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뤄진다. 광주는 전술훈련에 주안점을 두고 4-5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

들의 실전감각과 조직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은 "K리그1은 경쟁이 강하다. 그럴 시기 때문에 선수들이 동계훈련에 임하는 각오도 남다르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2020시즌은 K리그1에서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섭 감독은 "2020시즌은 기존 선수들과 함께 조직력을 유지하며 부족한 포지션은 보강을 통해 대비하려 한다"며 "훈련도 중요하지만 부상예방도 중요하다. 잘 준비해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류현진 2월14일·김광현 2월12일 MLB 스프링캠프 시작

추신수·최지만은 2월17-18일 야수 훈련 스타트

2020년이 밝자 미국프로야구(MLB) 스프링캠프 개막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MLB닷컴이 2일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스프링캠프 일정을 보면, 투수인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야수들보다 먼저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

올해 정규리그에서 토론토의 1선발로 뛰는 류현진은 2월14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다나데에 있는 토론토의 시범경기 홈구장 TD 볼파크에 차려지는 투·포수 훈련에 참가한다.

백리크 데뷔를 앞둔 김광현은 2월12일 세인트루이스 투·포수진과 처음으로 만난다. 세인트루이스의 스프링캠프는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로저저너 세보레

스타디움에 차려진다.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은 2월18일 전체 팀 훈련에 참가한다. 탬파베이는 주 포트 살럿의 샬럿스포츠파크에서 봄을 난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야수 소집일은 2월17일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부지런한 추신수(38)는 월턴 일찍 텍사스의 스프링캠프인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 입소해 컨디션 끌어올릴 예정이다. /연합뉴스